

기울어진 사회...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를 말하다



공존의 사회는 나와 이웃이 연결돼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사진은 연결을 상징하는 조형물(위쪽)과 외부와 쉽게 소통될 수 있도록 고안된 오스트리아 빈의 어느 아파트. <명견만리 제작팀 제공>



명견만리-공존의 시대편

KBS '명견만리' 제작팀

행정 부처 가운데 '외로움부'라는 부서가 있는 나라가 있다. 정말 '외로움부'가 있을까,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다.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본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외로움부 장관'으로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임명한다. 그녀는 영국 정부가 주요 의제로 삼은 '외로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2018년 1월,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에게 세계 최초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다.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됐다. 영국인들이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에는

우리의 자화상 성찰하고 미래 가능하는 '나침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와 대중 지혜 모은 지식 콘텐츠

외로움·불평등·정신건강·지방소멸 등 공존 어젠다 제시

한 여성 정치인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웨스트요크셔주 베를린 지역구 하원인턴 조코스는 의원생활을 하며 고립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가족과 친구도 없이 동떨어진 이들을 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외로움 협회'를 세우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처럼 모두를 위한 공존의 시대는 열릴 것인가. 작금의 세계는 불평등 문제,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정신건강, 인구감소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방소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밝은 지혜와 과감한 상상력을 나눠온 '명견만리' 시리즈가 출간됐다. KBS 제작팀이 펴낸 이번 '명견만리-공존의 시대 편'은 기울어진 사회 풍경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필수 조건인 '공존'의 길에 주목한다.

'명견만리'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과 대중의 지혜를 모아 만든 지식 콘텐츠다. 김난도, 김영란, 송길영, 최재천과 같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제, 장진 등 문화계 인사까지 주요 인사들의 출

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강연과 다큐를 결합한 '렉처멘터리' 형식으로 우리 사회 어젠다를 공론화하며 콘텐츠의 진화를 이끌어냈다.

먼저 이번의 책에서 다루는 첫 번째 '불평등' 문제에서는 공존을 위한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한다.

구조적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양상이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보다 공멸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선택된 소수만이 돈을 버는 경제적 불평등은 공동체를 빠르게 분열시킵니다. 많은 연구들은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믿음이 없어지고, 지위경쟁이 일어나며, 이기적인 행동 방식이 만연하고, 이타적인 분위기가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책은 공존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희망을 복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기본 소득 등 복지실험을 비롯 수평의 사다리를 놓은 교육 패러다임 혁신,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바꿀 과감한 대안 등을 담았다.

두 번째 '병리' 부분에서는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정신질환의 사회적 요인을 들여다본다. 개개인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이를 사회 문제로 바라볼 때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다.

얼마 전 호주의 한 총리가 우울증을 앓는 사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고백은 호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신체적 응급처치만큼이나 정신적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영국 정부의 '외로움부 장관'의 사례처럼 정신적 문제는 개인의 몫을 넘어 사회 공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연결'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중국 사기(史記)의 '이사열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고. 임기순 '명견만리' 책임프로듀서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비로소 크고 넓고, 깊어진다"는 의미다. 이제 미래를 향한 창을 열고 새로운 공존을 이야기 할 때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성찰하고 새로운 통찰을 발견해 현실에 투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다.

<인플루엔셜·1만5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오목눈이의 사랑

이순원 지음

작가 이순원이 '정본 소설 사임당' 이후 2년 만에 신작 장편 '오목눈이의 사랑'을 펴냈다.

지난 1985년 단편 '소'로 등단한 이후 21편의 장편과 소설집 12권을 내며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오목눈이(뱀새)의 눈물겨운 모정과 모험을 강성적인 문체로 그려낸다.

작가는 고향인 강릉의 대관령 숲에서 빠꾸기 울음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이 새가 아프리카에서 1만4000킬로미터를 날아와 오목눈이 둠지에 알을 낳는다는 사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새들의 특성과 생태, 지구를 반 바퀴 가리지는 나간 여정에 작안해 이 작품을 구상했다.

소설은 우화적 기법을 보다 강화해 존재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간다. 주인공인 육분이는 평균 수명 4년에 뱀새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오목눈이로, 빠르게 날거나 수명이 긴 다른 새들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다. 하지만 불연 오목눈이의 어머니, 여름엔 빠꾸기의 어머니로 새 생명의 탄생에 일조한다. 제 몸집의 열 배에 달하는 새끼를 천신만고로 키웠더니 이윽고 빠꾸기 울음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가 버린 새끼 '앵두'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움에 못 이겨준다.

작고 가냘프지만 힘차게 날갯짓하며 제 운명을 살아가는 오목눈이의 생애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쟁의 삶에서 외적인 기준만 좇기 바쁜 우리에게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한다. "어디로 날아가든 바른 방향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되뇌는 오목눈이 육분이의 날갯짓에서 삶을 지속해나가는 속도와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해냄·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왜 손석희인가

배국남 지음

JTBC의 '뉴스9'과 '뉴스룸'은 한국 뉴스 프로그램의 포맷과 전혀 다른 혁신적인 뉴스 시스템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를 지향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제를 유지하는 어젠다 카펫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앵커 브리핑, 비하인드 뉴스 등 파격적인 변화를 선보였다.

한국 언론이 자리한 맥락 속에서 손석희가 주도한 혁신의 의의를 분석하며 뉴스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과 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책이 발간됐다. 대중문화 전문가이자 대중문화 평론가로 30년 가까이 대중문화와 미디어 전반에 걸쳐 취재하고 글을 쓰고 있는 배국남 기자가 '왜 손석희인가'를 펴냈다.

손석희는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보도해 권력의 정점을 끌어내리며 대한민국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세월호 대참사 당시에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배려하며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2017년 3월 31일 목포선항해 세월호가 도착한 후에도 현지에 취재기자를 7개월 넘게 상주시키며 수색작업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의 왜곡 기사, 오보, 선정적인 뉴스, 가짜뉴스가 넘쳐나던 가운데 재난 보도 원칙에 충실한 뉴스, 팩트에 기반한 기사, 200일이 넘는 장기 보도로 시청자의 선택을 받았다."

손석희는 언론인이기도 하지만 이름 하나만으로 시청자를 TV 앞으로 끌어당기는 스타다. 책에는 손석희의 가족, 좋아하는 음악, 밑고 글에 이르기까지 인간 손석희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다.



<동아시아·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라카미 하루키의 100곡 구리하라 유이치 외 지음·문승준 옮김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인공은 비틀스의 '노르웨이안 우드'를 듣고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을 떠올린다. 결말까지 이 노래는 이야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책과 음악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에서 음악은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요소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00곡'은 하루키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음악을 구리하라 유이치 등 5명의 전문가가 리뷰했다. 록, 팝, 클래식, 재즈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음악 등 다섯 장르에서 20곡씩 엄선했다. 100곡 중에는 비틀스나 비치 보이스의 노래처럼 하루키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들었으며 작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대입시키는 음악들이 대부분이다. 책에 등장하는 음악이나 뮤지션을 살펴보면 하루키의 음악 취향을 다양한 방면에서 접할 수 있다.

하루키의 기념할 만한 데뷔작인 '바람의 노래를 들려라'에는 비치 보이스의 '캘리포니아 걸스'라는 곡의 이름이 5번 등장하고, 가사가 2번이나 인용됐다.

이 책은 하루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곡을 수록된 앨범과 발표 시기, 그리고 어떤 작품에 등장했는지 나열하며 음악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다.

권말 부록으로 '하루키 연표'와 '하루키 소설 전곡 리스트'가 수록돼 있다. 하루키 연표를 통해 하루키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피고, 하루키 소설 전곡 리스트를 살펴 비치 보이스의 '캘리포니아 걸스'는 과연 몇 권의 작품에 등장했는지, 팝, 록, 클래식, 재즈 중 하루키가 작품에 가장 많이 등장시킨 음악 장르는 무엇인지, 일본 가요는 과연 몇 곡이나 등장했는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친구사재·1만6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펫팜족 Pet+Family 천만시대



- 네 집 건너 한 집에 반려동물 살고 있어요
- '반려동물이 누리는 세상' 다양해졌어요
- 반려동물 영화, 예능에 뜨거운 관심



축제 현장
꽃피고 바다 열리는
남도의 봄 축제 속으로

- 해외 문화 현장①
코펜하겐 뉴 칼스버그
클럽토크 미술관
- 세계 미디어아트 시티를 가다②
도시 빛내는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프랑스 '앙기앵 레 베 예술센터'
- 한국영화 100년-남도 시네마 산책③
남도 영화사의 중흥-광주극장 上
민족극장으로 탄생 84년 역사

에양 초대석
전방위 아트 워커 Art Worker
윤광준
"아름다운 일면 인생이 달라진다"

문방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①
나태주 시인의 시 세계
공주 풀꽃문학관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②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마포도서관

트렌드 따라잡기③
문화콘텐츠의 프리존
소셜 미디어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④
'꽃피는 함일의 섬' 소안도
독립운동가를 살려낸 보양식

전시 리뷰
2018미디어아트 특별전
<당신속의 낙원>전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⑤
하이에나가 된 연애 저널리즘
팩트 대신 가십이 넘친다

스포츠 이야기
KIA타이거즈, 광주FC
오키나와 전지훈련 현장으로

예술이 만난 이 사람
목포 '시네마라운지 MM'
총괄 디렉터 정성우

경인시립미술관
2천년 전통의 향기, 구림마을
구림다리를 활출산 정기 만끽